

전주시, 내년 예산 2조2371억원 편성

올해 당초예산 대비 2000억원 증액 시의회에 심의·의결 요청 민생 활력정책·탄소중립 실현·탄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초점

전주시가 올해보다 약 10% 증액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억눌린 민생경제 회복과 탄소중립 실현, 신성장산업 고도화,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춰 내년 살림 예산을 짰다.

시는 2022년도 전주시 예산안으로 올해 당초예산인 2조371억 원 대비 2000억 원(9.82%) 증액된 2조2371억 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과 일상, 더 강한 경제회복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새로운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람중심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시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방역 및 경제 분야 완전한 일상회복을 돕는 데 총 13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113억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14억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 6.5억 △마음치유 등 통합건강증진 지원 사업 5억 △방역소득 사업 3억 원 등이 책정됐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주사랑 상품권 141억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0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6.2억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3억 △전주형 공공배달업 구축 3억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1.5억 △안심콜 서비스 3.5억 △전통시장 환경 개선사업 18억 △농민수당 32억 △기분형 공익직접지불사업 58억 원 등이 반영됐다.

여기에 △산화합플라자 건립 40억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50억 △고용유지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5억 △중소기업 중사자 퇴직연금 지원 0.9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0억 △노인일자리 사업 407억 △공공근로 사업 21억 원 등 기업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더해졌다.

특히 청년 창업과 사회초년생인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3.4억 △취업연계 융합 고급인력 양성지원 2.7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0억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2.8억 △청년실업 프로젝트 6.7억 등이 편성됐다.

시는 또 탄소중립,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미래 신성장산업 고도화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한 예산에도 공을 들였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경차 구매 218억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31억 △스마트 그린도시 105억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42억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1.4억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1.8억 △탄소중립 시민소득 연구용역 1.5억 원 등이 편성됐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50억 △도시 바닷길 숲 조성 60억 △꽃심 지방정원 조성 67.5억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25억 △완산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26억 원 등이 책정됐다.

수소·탄소·드론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성장산업의 경우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188억 △수소시험도시 40억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28억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16억 △신산업융합복합지구 산업단지 건립 40억 △VR·AR 제작거점센터 운영 7억 △메타버스 교육·회의 플랫폼 1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시는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로 나아가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을 강화하는 데 탄력을 가할 예산도 세웠다. 세부적으로 △야생조류 도서관 건립 52억 △서신·쪽구름 생활밀착형 도서관 조성 17억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5.8억 △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103억 △예술공간 완산벽커 1973 조성 37.7억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및 예술마을 조성 66억 △덕진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 10억 △실내체육관 건립 90억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22.5억 △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 10억 원 등이 있다.

또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강화 부문 예산으로는 △전주역세권·인후반촌 도시재생 41억 △동완산동·도토리골·남노송동 새뜰마을 조성 34억 △도시재생 인정사업 33.6억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16억 △도로정비 및 개설 420억 △자전거도로 개설 45억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0억 △효사4동·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66억 △쓰레기 위탁 운영 및 처리비용 656억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생계급여, 보육료,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해 8500억 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도 책정됐다.

2022년도 전주시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 전주시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는 코로나19라는 예측불허의 위기 속에서도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다"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강도 높은 민생 활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산업의 미래, 복지의 미래, 환경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30년사 출판기념회



15일 전주시의회는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30년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전주시의회 30년사 책에 담아

지방자치체 부활한 1991년~현재 기록... 출판기념회 가져

전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한 지방자치 의회 30년 역사를 기록에 남겼다. 총 664쪽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담은 '전주시의회 30년사'를 통해서다. 이 책은 지난 1961년 군부 독재 시절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한 1991년 4월부터 현재에 이르는 역사를 수록했다.

15일 전주시의회는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30년사 출판기념회를 갖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기념회에는 역대 의장단 10명을 포함해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 34명의 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강동화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시의회 역사, 전주시의 변화를 집대성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주 발전을 선도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주시의회는 숭한 성장통을 통해 지금의 혁신적 의회를 만들어왔다"며 "이제 본격적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집행부와 맞닿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주시의회 30년사'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제4대 의회부터 현재 11대 의회까지의 방대한 기록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올해 초 발간 사업을 계획한 이후 3개월 가량 자료 조사와 역대 사진 자료 발굴, 국가기록원, 선거관리위원회, 역사박물관, 각종 도서관, 전문가 논문 등 수많은 자료를 발굴·조사해 역대 의회 대수별, 주제별로 의정의 역사를 정리했다. 제1편 '통사(通史)'는 1952년 지방자치제 시작과 함께 진정함 의미에서 자치시대가 열린 1991년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기록했다. 제2편 '전주시의회 의장 등 34명의 의원과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강동화 의장은 기념사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시의회 역사, 전주시의 변화를 집대성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주 발전을 선도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주시의회는 숭한 성장통을 통해 지금의 혁신적 의회를 만들어왔다"며 "이제 본격적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집행부와 맞닿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에 만든 30년사를 전북지역 각 의회와 자치단체,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보내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요양병원·요양시설 백신 추가접종 시작

총 1만2200여명 대상 진행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수개월이 지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이 시작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지역 내 35곳의 요양병원 대상자 9700여 명과 34곳의 요양시설 대상자 2500여 명 등 총 1만22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가접종은 1·2차 접종 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접종효과가 줄어들고 돌파감염이 늘어나자 감염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접종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을 완료하고 152일이 지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중 추가접종 희망

자로, 보건소에 희망자 명단을 발송해 접종이 이뤄진다.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 내 자체접종 방식으로, 요양시설은 13개 촉탁의료기관에서 방문하는 방식으로 접종이 시행되며, 모두 화이자 백신이 접종된다.

이와 함께 시는 15일부터 지역 내 31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 6200여 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을 본격화한다. 이들도 역시 2차 접종 후 152일이 지나야 하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약 190여 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 82%의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백신 추가접종의 경우에는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 등 1만279명에게 시행됐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인구정책 수립 위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

전주시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20대 이상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주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저출생·고령화 사회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인구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설문조사 항목은 성별, 연령, 거주기간 등 공통 항목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정책 선호도, 청년인구 유입책, 고령사회 대응책, 전주시 인구정책 개선 및 확대의견 등 총 20개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결혼 장려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물음부터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선호도에 대한 질문이 설문 항목으로 포함된다.

설문조사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http://naver.me/50nXyFqz)를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아동보육기관,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에서 오프라인 조사도 병행된다.

향후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시책을 발굴하거나 지역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전주형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의 자립 지원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 지원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조성 등 4개 분야, 134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 도심 곳곳에 겨울꽃 식재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 겨울꽃을 식재해 아름다운 꽃거리를 조성한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도심 경관을 생기 있게 만들기 위해 테마화단 10개소와 대형화분 22개 노선, 난간 화분 1

개소에 꽃양귀비, 백묘국, 보리 등 겨울꽃 19만3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추위에 강하다고 알려진 꽃양배추 등을 집중 식재해 겨울철에도 푸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